

조범현 2009년 히트작 ‘6인 선발’ 재가동

kt, 6인 선발 로테이션…왜?

조 감독 “5일 쉴 때 공이 더 좋아”
용병 능력 극대화·선발 자원 육성
선발 주기 강판 땀 땀 릴리프 투입

슈가 레이 마린론~정대현~요한 피노~트래비스 밴아트~정성곤(주권)~엄상백. 2016시즌 kt의 선발진 등판순서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팀들과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숫자다. kt는 리그에서 유일하게 6인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있다. kt 조범현 감독(사진)은 2009년 KIA에서 아킬리노 로페즈~릭 구토슨~윤석민~양현종~서재응~이대진까지 6인 선발 로테이션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그 해 KIA는 페넌트레이스에서 우승했고, 선발

투수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6인 선발은 큰 히트작으로 남았다.

조 감독은 8년 만에 kt에서 다시 6인 선발 카드를 꺼냈다.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외국인 선발 3인방의 능력 극대화다. 조 감독은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서 쏙 지켜본 결과 공통적으로 4일 쉬었을 때 보다 5일 휴식을 취하고 등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공을 던졌다”고 설명했다.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며 피노가 2승무패, 마린론 2승무패, 밴아트 1승1패로 3명 모두 좋은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6인 선발 로테이션의 두 번째 이유는 팀의 미래를 대비한 선발 자원 육성이다. 조 감독은

정성곤이 6일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삼성전 4이닝 7실점 3자책) “몸을 추스르고 다시 올라오라”며 엔트리에서 제외한 뒤 주권을 1군에 불러 6인 선발 로테이션을 유지했다.

국내파 선발진은 모두 20대 초중반이다. 정대현 25세, 주권 21세, 그리고 엄상백과 정성곤은 겨우 20세다. 조 감독은 “내년에는 외국인 선수

엔트리가 한 명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팀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선발투수를 빨리 키워야 한다. 올해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현과 정성곤은 좌완, 엄상백은

사이드 암, 주권은 우완 투수다.

그러나 6인 선발 로테이션은 불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불펜 가용 인원이 한 명 줄어들기 때문에 선발 투수가 난조를 보여 일찍 강판됐을 때 불펜 투수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kt는 신생팀 혜택으로 올 시즌까지 1군 엔트리를 다른 구단보다 1명 더 많은 28명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조 감독은 “기본적으로 6명으로 선발진을 짰을 때 선발투수가 책임져야 하는 이닝은 더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로테이션 자체가 잘 운영된다. 단, 주기 강판되는 상황이 올 경우 롱 릴리프가 투입되고 그 다음날 엔트리를 조정해 퓨처스에서 새로운 투수를 올리는 등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늦었어, 던지지 마’ NC 박민우(오른쪽)가 13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전 1-0으로 앞선 1회초 1사 1·3루 조영훈의 희생 플라이 때 3루에서 태그업 홈으로 뛰어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득점하고 있다. 삼성 포수 이흥련은 야수진에 오른 손바닥을 펴며 송구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코칭스태프까지 교체…리셋 버튼 누른 한화

시즌 초반 최하위로 떨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행보를 보이는 한화가 부상 악령까지 겹치면서 더욱 꼬이고 있다. 그러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선수 교체는 물론 투수코치와 배터리코치까지 바꾸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한화는 13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두산전에 앞서 엔트리를 대거 교체했다. 우선 전날 두산전 도중 종아리 통증을 호소한 주전포수 조인성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조인성은 3회말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두산 투수 마이클 보우덴의 1루 견제 약속구 때 2루로 진출한 뒤 이용규의 1루 땅볼 때

3루로 달리다 갑자기 왼쪽 종아리 통증을 호소했다. 트레이너들의 부축을 받고 교체된 조인성은 14일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했다. 그 결과 종아리 근육 부분 파열로 판명돼 결국 이날 오후 일본 요코하마 이치마 치료원으로 갔다. 지난해 시범경기 때 오른쪽 종아리 부분 파열로 이곳에서 치료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완치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례를 비춰보면 1군 복귀까지는 6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이용규가 1군에 복귀하는 날 조인성이 빠져나가면서 한화는 허탈해하고 있다. 공·수·주의 핵심 이

용규는 지난달 25일 시범경기 kt전에서 상대투수 김사육의 투구에 왼 손목을 맞아 그동안 1군 엔트리에서 제외돼 있었다. 한화는 이날 조인성이 빠진 자리에 포수 허도환을 등록하는 한편 투수 김용주와 외야수 이종환도 함께 1군 엔트리에 등록했다. 대신 신인투수 김재영과 외야수 송주호가 2군으로 내려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치들까지 교체했다. 일본인 고바야시 세이지 투수코치와 오키 야스시 배터리코치를 2군으로 내려 보내고, 정민태 투수코치와 신경현 배터리코치를 1군 엔트리에 등

이용규 1군 복귀하는 날 조인성 부상 투수·배터리코치 교체…분위기 쇄신

록했다. 시즌 개막 후 9경기 만에 핵심 코칭스태프를 교체하는 충격요법을 썼다.

한화 김성근 감독은 이날 경기에 앞서 이에 대해 ‘분위기 전환 차원이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도 있고, 워낙 불빛이 많아서”라고 설명한 뒤 “조인성도 빠져서 언어소통이 돼야하지 않나 싶어서 그랬다”고 덧붙였다. 엔트리 대거 교체와 코칭스태프 개편이라는 ‘리셋 버튼’을 누른 한화가 과연 탈꼴찌와 함께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김기태 감독 ‘그뒤편’ 화법이 사라진 이유

〈미디어테이 ‘실검’ 1위〉

■ 런다운

“방송 없었다” 카메라 올림중 고백

KIA 김기태 감독은 올 시즌 미디어테이의 ‘최고 스타’였다. 평소 그만의 ‘그, 뭐, 저’ 화법을 소개하면서 야구팬들에게 큰 웃음을 안겼다. 선수들은 미디어테이에서 “감독님 실검(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라며 엄지를

차쳐세웠다.

KIA-SK전인 열린 13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 경기 전 김 감독은 취재진과 대화 도중 ‘실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반색했다. 비교적 ‘새 얼굴’인 김윤동이 전날 경기 후투로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자 “나도 검색어 1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이 말한 시점은 이번 미디어

테이다. 그는 평소 인터뷰에서 “그…”, “뭐…”, “저…”라며 머뭇거리는 습관이 있다.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에서 나온 그만의 독특한 버릇이다.

당시 옆에 있던 주장 이범호와 투수 윤석민은 웃음을 참지 못해 힘겨워 할 정도였다. 사회자가 김 감독에게 “그, 뭐, 저 없이 팬들에게 영상편지를 부탁한다”고 말하자 빨개진 얼굴로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 KIA 팬 여러분들 항상 사랑합니다. 올 시즌에도 항상 많은 사랑

과 응원, 그 뒤 부탁드리고”라고 한 뒤 결국 끝에 ‘그’와 ‘뭐’를 내뱉고 말았다. 현장은 웃음바다가 됐고, 김 감독은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황급히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날 이후로 김 감독의 ‘그, 뭐, 저’ 화법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있다. 김 감독은 “개막하고 아직 한 번도 안 하지 않았나”라며 활짝 웃었다. 그가 밝힌 이유가 또 한 번 웃음을 안겼다. 김 감독은 “사실 방송이 없었다. 나도 카메라만 있으면 괜찮지 않나”라며 서둘러 그리운대로 향했다. 문학 | 이명노 기자

한기주도 부활…KIA, 드라마는 계속된다

12일 SK전 1462일 만에 구원승
4차례 수술 시련 딛고 재기 성공
“곽정철 형한테 축하 문자 받았죠”

올 시즌 KIA에선 ‘사연남’들의 드라마가 계속 되고 있다. 9차례의 수술 끝에 5년 만에 마운드에 돌아와 1792일만에 세이브를 올린 곽정철(30)에 이어 한기주(29)도 1462일만에 구원승을 올리며 성공적인 재기를 알렸다.

곽정철이 2경기서 2세이브를 올린 뒤 갑작스런 혈행장애로 1군에서 이탈한 가운데 또 다른 사연남 한기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기주는 2009년 팔꿈치 수술을 시작으로, 2011년과 2012년 손가락 수술, 2013년 어깨 수술까지 총 4차례나 칼을 대면서 1군 마운드와 멀어졌다.

한기주는 12일 문학 SK전에서 선발 임준혁이 난조를 보이자 3회말 2사 1·2루 위기에서 마운드에 올랐다. 갑작스런 호흡에도 한기주는 3이닝 무안타 3볼넷 무실점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

2012년 4월 11일 무등 삼성전 이후 1462일만에 거둔 승리였다.

불같은 강속구는 사라졌지만 그의 공에는 또 다른 힘이 있다. 140km대 초반의 직구에도 다양한 변화구를 섞어 과거에 비해 노련한 피칭을 이어가고 있다. 스타일 변화까지 성공해 그의 피칭은 더욱 드라마틱하다.

13일 경기에 앞서 만난 한기주는 “예전엔 힘 대 힘으로 타자를 잡으려고 했다. 지금은 땅볼이나 뜬공으로 맞춰 잡는데 집중한다. 지금까지는 느낌이 좋은 것 같다. 과거에 비해 타자들이 힘도 좋아지고 선구안도 좋아진 것 같다”며 웃었다.

한기주의 현재 보직은 롱릴리프다. 12일처럼 선발이 조기에 강판됐을 때 긴 이닝을 막아줘야 한다. 승리가 쉽지



KIA 한기주가 12일 문학 SK전에서 1462일 만에 승리를 거두며 재기를 알렸다. 한기주는 지난 8년간 총 4차례의 수술을 거치며 마운드와 1군에서 멀어졌다. 당분간은 긴 이닝을 막아주는 롱릴리프 보직을 맡을 전망이다.

않은 보직이다. 그는 “경기 초반부터 대기를 한다. 안 나갈 때도 피칭을 하고, 모든 투수들이 마찬가지로 각자 컨디션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 승리는 상관없다. 운이 좋으면 따라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4년만의 승리, 축하문자를 많이 받았지만 선배 곽정철의 문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한기주는 “(곽)정철이형한테 ‘첫 승 축하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래서 ‘빨리 올라와’라고 답했다. 오랜 시간 함께 재물을 했다.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곧 돌아올 곽정철은 물론 한기주의 드라마도 이제 시작이다. 견제함을 알린 첫 승리, 본인은 덤덤했지만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문학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국내 유일의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은 3단계 환기 시스템을 구축해 행사와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13일 kt전을 앞두고 훈련 중인 백건 선수의 모습.

돔구장은 미세먼지·황사로부터 안전할까

지붕창 개폐·제트팬·공기정화기
고척돔, 3단계 환기 시스템 구축
“다른 구장보다 공기질 한결 낫다”

전국에서 프로야구 3연전이 열렸던 지난 주말(8~10일). 야구팬들은 폐색한 분위기 속에서 관람할 수 있는 봄 날씨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국을 뒤덮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각 구장엔 탁한 공기가 가득했다. 마스크도 소용없는 날씨였다.

대기상황이 좋지 않자 현장에선 돔구장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돔구장 경기였다면 이런 날씨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국내 유일의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은 정말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안전할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돔구장운영처에 문의한 결과 “국내 다른 구장들보다는 고척돔의 공기가 한결 낫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외부로부터 밀폐된 구조 덕도 있지만 제대로 된 환기 체계가 큰 몫을 한다. 고척돔 기계설비를 담당하는 시설팀 손영운 주임은 “돔구장 공기정화에서 가장 중요한 환기 시스템을 총 3단계로 갖췄습니다. 창문 개폐, 제트팬(jet-fan), 공기정화기를 차례대로 이용해 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주임의 설명에 따르면, 첫 단계는 창문 개방을 통한 자연 환기다. 구장 측면에 위치한 창문을 닫고 지붕에 위치한 창문을 열면 내부의 상승기류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기가 이뤄진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는 내부 온도가

더 높아져 상승기류를 이용한 환기가 보다 쉽다. 돔구장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이유이기도 하다. 손 주임은 “미세먼지를 차단하려면 창문을 다 닫는 방법이 있지만 그럴 경우 환기가 불가능해 경기 전에 창문을 열어 놓는다”라고 덧붙였다.

2단계는 제트팬을 이용한 강제 환기다. 터널에서 많이 쓰이는 제트팬을 돔구장에도 적용했다. 관중석 바로 위에 위치한 15개 환풍기와 구장 상단에 설치한 22개 환풍기의 방향이 지붕 위로 향하면 강제적으로 내부 공기를 밖으로 뱉을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구장 안에 장착한 공기정화기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기정화기 20대가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 안에 부착된 필터가 먼지를 걸러 실내 공기를 맑게 한다. 특히 내부 시설공사로 생긴 먼지를 잡아내는 데 효과가 탁월하다.

고척돔의 환기 시스템이 이처럼 체계적으로 갖춰진 데는 지난해 개장행사에서 생긴 해프닝이 한몫했다. 지난해 11월 4일 개장식에서 터진 폭죽 연기가 한동안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바로 이어진 한국과 쿠바의 친선경기에도 영향을 줄만큼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손 주임은 “원래는 창문을 여닫는 정도로 환기를 생겼는데 이날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 제트팬과 공기정화기 사용을 염두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진 | 곽정철 기자 ico@donga.com